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ve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이 서 호*

Seoho Le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검증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시사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서울, 세종,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요인은 크게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지역 안전성 인식, 교통업무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유효한 선행변인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시민의 인지하는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제고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치안 행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질적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 주제어: 자치경찰제도 인식, 지역 안전성 인식,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경찰신뢰, 지역사회 경찰활동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논문 접수일: 2024. 2. 7. 심사기간: 2024. 2. 7. ~ 2024. 3. 11. 게재확정일: 2024. 3. 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the promotion and stabl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verifying th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his purpose, we used survey data from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I)” and attempted to analyze adults living in Seoul, Sejong, and Jeju, which introduc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a pilot basis. According to the detailed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largely in the order of satisfaction with life safety work, perception of local safety, and satisfaction with transportation work. On the other hand, trust in the police could not be a valid antecedent variable in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systematic efforts may be neede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specific autonomous police work and to secure local safety as perceived by citizens. Above all, strategic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may be needed to secur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life safety work such as protec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practical management measures for community police activities are required to promote the safety of the community.

□ Keywords: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erception of Local Safety, Satisfaction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Police Trust, Community Policing

I. 서론

특정 제도(制度)는 ‘관습이나 도덕·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체계 시스템 전반의 규범적 작동원리에 기여하며 행정의 합목적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특히,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치안(治安)’에 관한 제도는 민생의 안정과 사회 질서의 확립 및 공공의 안전 등과 연계되어 시민의 치안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갖춘 ‘치안 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광역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권의 민주성·분권성 및 정치적 합리성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진행되면서 제도변화 초기에 나타나는 치안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련의 충격은 상당 부분 진정되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경찰권에 대한 통제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이서호, 2023), 자치경찰제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 그럼에도, 현재의 ‘형식적 자치경찰제’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도약하고 안정적인 정착·운명을 위한 보다 명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규범적 관점에서 제도의 한계 등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실천적 논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 자치경찰제’는 주민-경찰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에 기반한 사회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바, 지방자치와 연계된 치안 행정에 대한 시민의 명확한 인지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 사회를 향유하는 시민이 자치경찰제를 ‘어떠한 수준으로’ 혹은 ‘무엇을 중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미진했던 이유로 제도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며(라광현, 정재훈, 정의롭, 2020). 현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기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찰 활동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이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홍승표, 2022).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 모두의 생활과 안전 및 사회의 질서 유지에 직결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 경찰청이 도입하여 실천·운영중인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제도’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적 모형체제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과 인원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경찰이 구체적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기형적’ 업무 분권이 주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으로 시민들의 자치경찰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수혜와 사회질서에 대한 올바른 함의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본 제도를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성하는 영향(예측) 요인에 대하여 체계화된 해답이나 정책 판단의 기초를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제도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 이전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차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 과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 안정적인 운영·정착을 확보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도에 관한 사무의 만족 수준 및 제도 기반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등으로 차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경찰 활동은 단일기능이나 역할보다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목표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행정 수행 활동에 대한 규범적 체계에 관한 복잡한 인식론적 원인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경찰활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이훈, 노성훈, 조준택, 2016), 기존 논의들이 대체로 규범학적·제도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도를 논의하거나 인식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요인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현 자치경찰제도를 인식하는 현황을 파악(홍승표, 2022)하는 것에 그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의 구체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성공적 제도운동을 위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 영향요인 제고를 통해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치안정책과 지방행정간의 연계에서 올바른 '자치(自治)'를 위한 시민의 인식 제고는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등과 관련된 각종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

특정 제도란 행정체계에 관한 제도적·규범적 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는지는 체계적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정책 수용성 및

행정 일반의 안정적 운용에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주요한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명확한 인지는 기본적으로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안녕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제도 본연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어 규범적 생활양식의 정당성과 사회질서의 올바른 확립이 무엇인지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가능케 한다. 특히, 각종 경찰행정 제도(Police Administration System)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공공안전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는 '특수한 제도적 체계' 이래 민생의 안정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바(이서호, 2022), 시민의 관점에서 그 어떠한 제도적 작용보다 민감한 인지적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각종 경찰제도 중 지역의 안정에 높은 책임을 지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주민간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 이를 반영한 제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은 개인의 안녕과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겠다. Hawdon과 Ryan(2003)도 지역사회 치안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들의 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라본 바 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정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자치경찰제 운영에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에 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제도 본연의 의의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규범적 논의를 제시하는 것 이전에 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시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합리적인 제도 인식 제고 방안과 관련된 효율적 논의를 통해 치안 정책집행의 타당성·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음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 결정요인을 단편적으로 고려하거나(류준혁, 2013), 자치경찰에 대한 단순한 인식현황 및 조사에 그친 한계를 지녀(제갈욱, 제갈돈, 2008; 김상호, 2019) 개인 내적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과 구체적 예측요인의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사회의 각종 제반 요소와 지역주민의 구체적 치안수요와 연계되어 복잡다단할 수 있는 인식 원인론을 형성할 수 있어 제도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예측요인을 차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정책의 방향성이 다차원적일 수 있음을 예상하면 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예측요인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2.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

특정 경찰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시민들이 치안에 보다 협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바(정승민, 2005), 이는 경찰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타당성 확보를 가능케 한다. 이에 '경찰학(police science)'에선, 각종 경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신뢰(Cao, 2015; 김구, 2005; 이재영, 2011), 경찰만족도 및 지역 안전성 인식(Donnelly et al., 2006; Hinds, 2009; Skogan, 2005; 김미호, 2013) 등에 주목한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영향 수준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특정 제도 인식에 대한 다차원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이승중, 김혜정, 2018). 이를 반영하여 강지현(2016)도 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수준으로서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 경찰신뢰, 경찰 만족도 및 경찰에 대한 태도 등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찰 관련 변인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자치경찰사무 만족도와 경찰신뢰 수준, 개인이 인지하는 환경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성 인식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특히, 지역 안전성 인식은 자치경찰의 구체적 활동원리가 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과 이론적으로 높은 상호 연계성을 지니는 바, 높은 수준의 예측 설명력을 예상할 수 있다(Reisig, Park, 2004). 이에 전술한 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인식 제고 방안 및 각 설명력 수준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경찰신뢰 및 자치경찰 사무 만족도

형사사법 연구에 있어서 경찰신뢰는 부정확하게 논의되었고 종종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Cao, 2015). 이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경찰 역할의 포괄성과 이에 대응하는 시민의 기대가 복잡다단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경찰신뢰는 합리적인 치안정책의 구현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한 전제로서 언급되고 있다(이서호, 2023), 특히,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시민간의 상호성을 기반으로한 '공동체 치안'을 근간으로 하는 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생산적인 경찰-시민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에 엄유진, 조제성(2022)도 관료제(국가경찰)에서 민주행정 구현(자치경찰)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경찰신뢰는 그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바, 주민연계를 통한 치안정책은 '신뢰'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즉,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활동원리가 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경찰-시민간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Kääriäinen, Siren(2012)도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시민에 대한 경찰의 신뢰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광범위한 협업 및 협력은 상호의 신뢰, 존중 및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임창호, 2019).

즉, 경찰에 대한 지역 주민의 높은 신뢰는 성공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경찰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경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 및 경찰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수록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된다(Pattavina et al., 2006; 이상훈, 김순석, 2017).

나아가 경찰에 대한 만족은 경찰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의미하며(홍태경, 2017), 경찰로부터 받게 되는 편안함과 만족을 반영한다(Cao, 2015). 이와 관련, 사무의 구분에 입각한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특성상 시민이 인지하는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치안 사무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현승숙, 이승중(2009)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제도를 평가·인지할 수는 있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보는 바, 경찰 사무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이 각종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지에 주요한 선행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홍태경(2017)은 순찰, 방범활동과 같은 생활안전 및 교통사무의 만족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치안활동 원리 및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 삶과 복잡다단하게 연계된 생활안전, 교통 및 민생에 관한 전반적인 수혜 수준이 자치경찰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 치안’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자치경찰제’의 패러다임은 강력한 법질서 유지에서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박선영, 2012)인 바, 구체적 사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찰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통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어떠한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가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인식 제고에 주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치안사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용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역 안전성 인식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해당 지역은 다양한 부작용에 직면하게 된다(Skogan, 1986). 이는 지역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을 지는 경찰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는 바, 지역 안전도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식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n, Cao, Lovrich, & Graffney, 2005). 즉, 지역의 각종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 등은 지역 기반의 경찰제도 및 구체적 치안 활동과 높은 인과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활동 원리가 되며 지역 내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지역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주목한다(Reisig, Park, 2004). 이러한 ‘삶의 질’ 모형에선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인식, 지역 안전 수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류준혁, 2013). 예컨대, 지역적 무질서 수준 높거나 범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경찰이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다고 여길 수 있어 각종 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홍태경, 2017). 실제로 지역 내 무질서가 자주 목격되거나 지역 안전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제도에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Haberman et al, 2016), Reisig와 Park(2004)도 지역 수준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안전 요인들이 경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연구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반면 지역적 환경에 높은 안전감을 지니는 시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지현, 2016).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적·환경적 요인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시민이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성과 연계된 ‘지역사회 경찰활동’ 구체적 활동 원리를 명확히 인지해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치안의 각종 현황(지역 안전, 범죄 두려움 수준 등)에 초점을 두고 경찰-주민 간의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지역에 대한 총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즉,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제공을 핵심 목표로 운영되는 바,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이 곧 경찰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선행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하여 1:1 설문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자료는 2019년 9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수집되었다. 자치경찰은 2019년에 서울, 세종, 제주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었는 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2019년 자료를 활용하나 지방자치에 기반한 자치경찰에 대한 일반적 합의 적용 가능성 및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구현이라는 제도적 목적 달성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초창기에 국민적 인식을 살펴보고 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향후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선 사항에 유의미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 초반에는 약 1페이지가량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개관, 예상되는 장점 및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분석 모집단은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서울, 세종, 제주 지역의 성인들이다. 표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하였으며 전체 1012명 중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인한 결측치¹⁾를 제외한 최종 565명을 대상으로 했다.

2. 주요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지역 안전성 인식,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및 경찰신뢰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 안전성 인식은 위험 또는 안전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김중곤, 2021) 일반적으로

1) 결측치는 통제변수(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에서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한 결측치로 인해 표본이 특정집단으로 편중될 수 있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이유가 설문문항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자료의 타당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 및 절차적 과정은 형사사법 개혁의 큰 흐름에서 진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에 대해 개별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어느정도 형성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표본의 적합성을 갖춘다.

‘얼마나 안전(또는 위협)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측정된다(Ferraro, 1995). 이를 위해 지역의 사회기반 질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항으로 1) ‘우리 지역은 교통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 2) ‘우리 지역은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다’ 3) ‘우리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4) ‘나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죄 행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 지역 경찰은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5가지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안전성 인식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09로 나타났다.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란 경찰의 치안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태도가 어느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준섭, 한상철, 2022). 이와 관련, 본 연구의 자치경찰사무 만족도는 생활안전업무와 교통업무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했다. 이는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에 있어서 생활안전과 교통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에 따르며(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2021), 기타 경비나 수사업무와 달리 국가와 자치사무의 ‘중첩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최천근, 2014) 자치경찰 사무의 ‘고유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한 자치수사 사무는 형사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성홍재, 2022).

우선 생활안전업무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각종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바,²⁾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문항으로 1) ‘우리 지역 경찰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2) ‘우리 지역 경찰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잘하고 있다’ 3) ‘우리 지역 경찰은 여성에 대한 보호 업무를 잘하고 있다’ 4) ‘우리 지역 경찰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5) ‘우리 지역 경찰은 장애인 보호 업무를 잘하고 있다’ 6) ‘우리 지역 경찰은 아동 보호 업무를 잘하고 있다’ 7) ‘우리 지역 경찰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7가지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안전업무에 대한 만족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09로 나타났다.

2)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교통업무의 경우 사회질서 일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 교육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등을 포함한다.³⁾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통업무 만족도의 문항으로, 1) '우리 지역 경찰은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2) '우리 지역 경찰은 주민의 일상 생활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3) '우리 지역 경찰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3가지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1~5 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교통업무에 대한 만족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통업무 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743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지역 경찰에 대한 업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에 Tyler와 Fagan(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찰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을 통해 경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신뢰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1) '우리 지역 경찰은 믿을 수 있다' 2) '우리 지역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3) '우리 지역 경찰은 공정하다' 4) '우리 지역 경찰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우리 지역 경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5가지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찰신뢰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09로 나타났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으로 구성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바(홍승표, 2023),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무업무의 신속성, 확실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다. 류준혁(2013)도 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측정은 일관적일 수 없어 일반적·포괄적 인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항으로, 1) '자치경찰제로 범죄 수사나 범인 검거가 더 확실히 될 것이다', 2) '자치경찰제로 경찰의 업무처리가 더욱 신속해질 것이다' 3) '자치경찰제로 경찰과 시민 사이에 소통이 늘 것이다' 4) '자치경찰제로 지역 경찰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4가지로 구성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었으며 총합척도로 활용했다. 즉 점수가

3)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높을수록 현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제도 인식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841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소득(월평균), 학력, 거주기간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1', '여성=0', 연령은 만 19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월평균 100만원 미만', '2=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 '3=월평균 200~400만원 미만', '4=월평균 400만원~600만원 미만', '5=월평균 600만원~800만원 미만', '6=월평균 800만원~1,000만원 미만', '7=월평균 1,000만원 이상' 으로 코딩했다. 학력은 '1=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초등학교 중퇴포함)', '2=중학교(재학, 중퇴, 졸업 포함)', '3=고등학교(재학, 중퇴, 졸업 포함)', '4=대학교(재학, 중퇴, 졸업 포함)', '5=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박사 후 과정)', 거주기간(서울, 세종, 제주)은 '1=1년 미만', '2=1년 이상~2년 미만', '3=2년 이상~3년 미만', '4=3년 이상~4년 미만', '5=4년 이상~5년 미만', '6=5년 이상~7년 미만', '7=7년 이상~10년 미만', '8=10년 초과' 로 코딩했다.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입 여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정책, 이하 검경수사권 조정)여부, 사형제 폐지 여부로 구성된다. 각각 공수처 도입 찬성여부 '찬성=1' '반대=0',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여부 '찬성=1' '반대=0', 사형제 폐지 찬성여부 '찬성=1' '반대=0' 로 코딩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함께 검토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도입 절차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이 상호 밀접한 연계를 지닐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류준혁, 2021),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의 분권화는 자치경찰제의 추진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연구 조사가 언급되기도 한다(라광현, 박준휘, 2021; 라광현, 정재훈, 정의롭, 2020).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를 요구하거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자치경찰은 '검찰개혁' 과 관련한 협상 의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개혁' 과 연동된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흐름엔 공수처 설치도 함께 검토되어 설치·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승익, 2021; 이호중, 2013).

사형제 폐지 여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엄격성·확실성을 의미하며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반면,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일원화된 지휘·통솔 체계를 통한 엄격성·확실성 추구보단 지역 범죄예방의 민주성·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맞물린 자치경찰제의 가치 지향성과 사형제 폐지에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현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이며 시행 기간도 짧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실시했다. 첫째, 각 변인들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분석 및 내적 신뢰도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 타당도 및 모형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이변량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상관 수준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기타 변수(인구·사회학적 특성,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통상적인 인구·사회적 배경 외에도 형사사법(치안정책) 특성을 통제 변수로서 투입했다. 이는 전술하였듯,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변수들로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개혁논의도 자치경찰과 주요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안정책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립변수간의 설명력 차이에 따른 정책제안이 필요할 수 있겠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간의 영향력 순위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 각 단계의 모형별로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효과크기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기초 통계량

아래 <표 1>은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변인들 위주로 평균을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인 지역 안전성 인식,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교통업무 만족도 및 경찰신뢰는 모두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도 평균이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인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여부의 평균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사형제 폐지 여부의 평균에 따르면 반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기초 통계량

(N=565)

구분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통제 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0	1.0	.5	.56	.50
		연령	19.0	79.0	49	46.28	14.04
		소득	1.0	7.0	4	3.85	1.10
		학력	1.0	5.0	3	3.56	.75
		거주기간	2.0	8.0	5	6.98	1.82
	형사사법· 치안정책적 특성	공수처 설치 여부	0.0	1.0	.5	.81	.40
		검경 수사권 조정 여부	0.0	1.0	.5	.69	.47
		사형제 폐지 여부	0.0	1.0	.5	.39	.49
독립 변인	지역 안전성 인식		6.00	25.00	15.5	18.25	2.99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7.00	34.00	20.5	24.31	4.21
		교통업무 만족도	3.00	15.00	9	10.58	1.73
	경찰신뢰		5.00	25.00	15	17.57	3.11
종속 변인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		4.00	16.00	10	11.23	2.13

2. 주요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검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비교적합지수 CFI, 비표준적합지수 TLI, 절대적합지수 RMSEA와 SRMR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CFI=.915, TLI=.903, SRMR=.044, RMSEA=.059(.055~.062)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CFI, TLI는 지수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이서호, 2023), RMSEA는 지수가 .06이하, SRMR은 지수가 .05이하면 적합한 모형으로 본다(이서호, 박정선, 2022). 따라서 아래 <표 2>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적합도는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요인적재값(β)값도 모두 .5를 기준으로 모두 상회하고 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의 집중타당성도 검증되었다($p < .001$).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N=565)

					RMSEA 90% CI		
CFI	TLI	SRMR	RMSEA		Lower	Upper	
.915	.903	.044	.059		.055	.062	
Factor	Indicator	Estimate	SE	Z	p	β	Cron. α
지역 안전성 인식	1	.505	.002	20.9	<.001	.655	.761
	2	.594	.003	20.9	<.001	.661	
	3	.527	.003	16.4	<.001	.535	
	4	.583	.003	19.9	<.001	.630	
	5	.456	.003	14.7	<.001	.500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1	.716	.003	26.3	<.001	.734	.903
	2	.748	.003	27.3	<.001	.755	
	3	.738	.003	27.0	<.001	.750	
	4	.807	.003	25.6	<.001	.721	
	5	.775	.003	25.2	<.001	.714	
	6	.766	.003	28.2	<.001	.773	
	7	.800	.003	28.7	<.001	.781	
교통업무 만족도	1	.549	.003	17.9	<.001	.573	.743
	2	.603	.003	23.8	<.001	.718	
	3	.685	.003	26.9	<.001	.798	
경찰신뢰	1	.717	.003	24.9	<.001	.721	.841
	2	.645	.003	23.9	<.001	.700	
	3	.721	.003	22.1	<.001	.660	
	4	.647	.003	23.6	<.001	.692	
	5	.617	.002	25.0	<.001	.723	
자치경찰제도 인식	1	.455	.002	22.6	<.001	.719	.707
	2	.541	.003	21.4	<.001	.688	
	3	.371	.003	13.9	<.001	.500	
	4	.503	.002	22.5	<.001	.713	

3.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어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해 각 변인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3>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찰신뢰'와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및 '지역 안전성 인식'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r=.711$, $r=.710$). 하지만 '자치경찰제도 인식'과 '경찰신뢰' 및 '교통업무 만족도' 순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낸다($r=.345$, $r=.365$). 나아가 '자치경찰제도 인식'은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데($r<.40$), 이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이 여타 영향요인들간의 관계에서 다소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각 변인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 값들은 모두 .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배병렬, 2002).

<표 3>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N=565)

연구 단위	1. 자치경찰제도 인식	2. 지역 안전성 인식	3.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4. 교통업무 만족도	5. 경찰신뢰
1	1				
2	.371**	1			
3	.389**	.650**	1		
4	.365**	.526**	.699**	1	
5	.345**	.710**	.711**	.572**	1

* $p<.05$, ** $p<.01$, *** $p<.001$

4.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외적효과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설명력과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설명력 효과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인을 먼저 투입한 뒤 다음으로 독립변인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생변인을 통제한 후 지역 안전성 인식,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및 경찰신뢰가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했다.

이와 관련,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형사사법·치안정책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인으로서 지역

안전성 인식,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및 경찰신뢰를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이와 같은 독립변인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우선 [모형1]은 $F=3.101(p<.01)$, [모형2]는 $F=12.243(p<.001)$ 으로 각각 나타나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모형1]의 $R^2=0.043$, [모형2]의 $R^2=0.210$ 으로 각각 나타나 R제곱 변화량이 0.16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명력이 약 5배 가량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R제곱 F변화량($F=29.268$)에 따른 유의확률이 $p<.01$ 으로 통제변인 투입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인이 투입된 [모형2]에 따르면 지역 안전성 인식($t=2.911, p<.01$), 생활안전업무 만족도($t=2.758, p<.01$), 교통업무 만족도 ($t=2.576, p<.05$)는 모두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적 안위 및 구체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표준화 회귀계수(β)를 통한 구체적 영향 수준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업무 만족도($\beta=.182$), 지역 안전성 인식($\beta=.167$), 교통업무 만족도($\beta=.143$)순으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만족 및 지역적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같은 개인 내적·환경적 요인들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데 전반적으로 유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제도적 보호 및 안전망 구축 등과 같은 실천적 노력이 자치경찰의 구현원리와 높은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찰 신뢰의 경우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017, p>.0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유효한 선행변인이 될 수 없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 향상은 해당 정책의 합목적성과 집행과정의 타당성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흐름이다. 그럼에도, 민생의 안전에 높은 책임을 지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구체적 제도와의 실증적인 인과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찰(조직)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조직의 구체적 운영체계(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지와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 인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경찰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는 복잡다단한 시민의 민생과 안전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전제할 수 있다.

〈표 4〉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565)

구분	항목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					
		[모형1]			[모형2]		
		B	β	t(p)	B	β	t(p)
	(상수)	11.577		13.839 ***	5.053		5.152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112	-.026	-.622	-.298	-.070	-1.802
	연령	.009	.062	1.231	.002	.013	.291
	소득	.092	.047	1.035	.015	.008	.188
	학력	-.338	-.120	-2.344*	-.193	-.068	-1.458
	거주기간	-.061	-.052	-1.217	.039	.033	.823
형사사법· 치안정책적 특성	공수처 설치 여부	.303	.056	1.192	.236	.044	1.008
	검경 수사권 조정 여부	.215	.047	.990	.018	.004	.090
	사형제 폐지 여부	.444	.102	2.401*	.356	.082	2.066*
	지역 안전성 인식				.119	.167	2.911**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생활안전업무 만족도				.092	.182	2.758**
	교통업무 만족도				.175	.143	2.576*
	경찰신뢰				.001	.001	.017
	F(p)	3.101**			12.243***		
	R^2	.043			.210		
	adj. R^2	.029			.193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정책·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추상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수사(修辭)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올바른 이해에 의해 주어진다. 이에 민생의 안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과연 어떠한 방식이 올바른 운영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제도운영의 합리성·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자치경찰모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상황적

맥락에 적합한 올바른 제도의 적용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을 위한 공공재의 제공 및 올바른 제도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중심의 제도적 수용성 및 인식 영향요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도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주안점을 기준으로 제도를 바라보는지, 정책 수요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해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시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제도와 연관된 사무의 만족 수준과 조직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 인식에 주목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은 생활안전업무 만족도($\beta=.182$), 지역 안전성 인식($\beta=.167$), 교통업무 만족도($\beta=.143$)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의 만족 수준 제고와 지역적·환경적 여건의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서 생활안전업무의 법정 중요도는 교통업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박재희, 전대욱, 최인수, 2021). 제도 인식에 미치는 자치경찰 사무의 만족 순위와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법정 사무가 시민의 만족과 높은 상관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운영방식이 시민의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설명력 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업무는 여성·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근절·예방과 같은 청소년 관련 사무와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이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시민의 일반적 기대와 높은 연계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대인 보호 및 신체적·물리적 폭력에 대한 경찰 사무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각종 폭력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 기반 경찰활동과 높은 이론적·정책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전략적·실천적 적용을 통해 국민적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 지속적인 비행예방 대책연구(이서호, 박정선, 2022; 이서호, 2023)의 수행, 대 여성범죄 지도단속을 위한 효율적 경찰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사회 실천상의 성숙 및 각종 생활상의 안위와 연계될 수 있어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체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만족 외에도 지역적·환경적 요인도 자치경찰제도 인식 제고에 유효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안전성은 시민들이 인지하는 민생과 높은 연계성을 지니는 바, 지역 안전에 대한 인지적·이성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최우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이 인지하는 지역 안전에 대한 평가는 곧 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유효한 선행변인으로 나타나 지역 안전 대한 관심과 자치경찰제도의 포괄적 인식이 높은 상호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주요한 운영원리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율적 집행이 시민이 인지하는 지역의 안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바,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기반 경찰정책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시민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안전에 대한 시민의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범죄 대처능력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통제 및 집합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의 유기적 작동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찰작용의 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유대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해당 지역의 안전성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이다.

나아가 ‘교통업무 만족도’는 자치경찰제도 인식을 구성하는 자치사무의 만족도에 있어서 ‘생활안전업무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활동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체감도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김지영, 박재희, 2022)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교통은 사람·재화의 장소적 이동(수송, 전달)과 관련된 모든 행위 및 체계로 볼 수 있어 민생의 주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은 교통관련 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교통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시민간의 연계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업무에 대한 시민의 만족을 증진시켜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는 자치경찰 사무 만족 및 지역 안전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이 자치경찰제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유효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요한 사항으로 하는 생활안전업무에 대한 만족을 높은 수준으로 고취시키는 전략적인 노력이 자치경찰의 구현원리와 치안 정책적 목표와 부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업무에 대한 만족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주민간의 ‘집합 효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특정 조직(경찰조직 등)에 대한 신뢰가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의 경우 안전한 삶의 영위와 연계되어 복잡다단한 형성원인을 갖출 수 있는 바, 조직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단순한 인과성을 갖춘 영향 관계로 치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즉,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가 다양한 경찰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정책의 규범적 성격을 갖는 제도적 양식간의 인과성은 일차원적 관계로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기관(조직)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기관의 규범적·제도적 성격의 긍정적 인지를 가져와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일반적 전제를 ‘경찰행정’에 적용하고자 함에는 차별적인 견지가 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일부 요인들에 한정된 것에 한계를 둔다. 하지만 개인이 제도를 인식하고 향유하는 일련의 과정은 복잡하고 명료한 설명체계를 지니기 힘들 것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 둘째, 분석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 세종, 제주로 한정하여 시민의 인식을 파악해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전국 단위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인식을 측정해 데이터가 아직 확보·수집되지 못한 한계에 따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한창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현재 운용중인 ‘일원화’ 시스템과 다소 불일치가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민주성 함양 및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정책의 제공 등과 같은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대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지하는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도입 초기의 자치경찰의 국민적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했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이에 자치경찰 도입 이전의 경찰제도(국가경찰) 예측요인에 있어서의 위계적 설명력과 현행 운용중인 자치경찰에 대한 예측요인간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작업도 요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위계적으로 살펴본 것에 독자적 의의를 둔다.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생 중심의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꾀할 수 있음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6).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0: 31-57
- 김구. (2005).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신뢰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찰활동의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49-72.
- 김미호. (2013). SERVQUAL을 통한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평가. 「한국경찰연구」, 12(4): 3-32.
- 김상호. (2019).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석. 「치안정책연구」, 33(3): 103-138.
- 김중곤.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피해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75-98.
- 김지영·박재희. (2022). 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2): 107-136.
- 라광현·박준휘. (2021). 경찰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소고·비판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2(2): 95-115.
- 라광현·정재훈·정의림. (2020).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2): 169-192.
- 류준혁. (2013). 위계선형 모형 사용을 통한 시민의 경찰 인식 영향 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7(2): 57-100.
- 류준혁. (2021).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8(1): 123-136.
- 문준섭·한상철. (2022).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강원도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8(2): 41-61.
- 박선영. (2012).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NDSI (Newly Developed Service Index) 모델 적용. 「한국경찰연구」, 11(1): 105-128.
- 박재희·전대욱·최인수. (2021).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지방행정연구」, 35(4): 145-162.
- 배병렬. (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 성흥재. (2022).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경찰법연구」, 20(2): 63-95.
- 엄유진·조제성. (2022). 거주환경과 공동체 의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자치경찰제의 정착에 관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1): 179-196.

- 유승익. (202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와 과제. 「법과사회」, 68: 101-125.
- 이서호·박정선. (2022). 자기통제력,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검증 - 애착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22(1): 103-134.
- 이서호. (2023a). 무질서 인식, 범죄 두려움 및 경찰신뢰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 연구」, 37(3): 89-128.
- 이서호. (2023b). 여성의 공공 CCTV 정책 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9(2): 53-72.
- 이승중·김혜정. (2018). 「시민 참여론」. 박영사.
- 이호중. (2013). 검찰개혁의 방향, 과제, 전망: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논의에 부쳐. 「법과사회」, 44: 33-65.
- 이훈·노성훈·조준택. (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1): 3-38.
- 이재영. (2011). 경찰-주민접촉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8(3): 27-52.
- 임창호. (2020).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의 영향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 29(2): 215-244.
- 정승민. (2005). 경찰에 대한 태도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치안논단」, 7: 175-214.
- 제갈욱·제갈돈. (2008).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범죄통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367-397.
- 현승숙·이승중.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신뢰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93-112.
- 홍승표. (2022).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한국경찰학회보」, 24(2): 247-268.
- 홍승표. (2023). PSM 을 활용한 시민의 자치경찰 인식과 경찰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 169-188.
- 홍태경. (2017).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경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215-242.
- 황문규. (2020a).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2(3): 261-296.
- 황문규. (2020b).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경찰법연구」, 18(1): 35-68.
- 최천근. (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75-296.
- Cao, L. (2015). Differentiating confidence in the police, trust in the poli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8(2): 239-249.
- Donnelly, M., Kerr, N. J., Rimmer, R. & Shiu, E. M. (2006). Assessing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using SERVQUAL.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9(1): 92-105.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UNY press.

- Haberman, C. P., Groff, E. R., Ratcliffe, J. H., & Sorg, E. T. (2016). Satisfaction with police in violent crime hot spots: Using community surveys as a guide for selecting hot spots policing tactics. *Crime & Delinquency*, 62(4): 525-557.
-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
- Hawdon, J. E., Ryan, J. & Griffin. S. P. (2003). Policing tactics and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Police Quarterly*, 6(4): 469-491
- Hinds, L. (2009).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the influence of general attitudes and police-citizen encoun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11(1): 54-66.
- Kääriäinen, J., & Sirén, R. (2012). Do the police trust in citizens? European comparison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9(3): 276-289.
- Reisig, M. D., & Parks, R. B. (2004). Can community policing help the truly disadvantaged?. *Crime & Delinquency*, 50(2): 139-167.
- Ren, L., Cao, L., Lovrich, N., Gaffney, M. (2005).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55-66.
- Skogan, W. G. (2005).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e encounters. *Police Quarterly*, 8(3): 298-321.
- Skogan, W. G.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18.
- Tyler, T. R., Fagan, J.(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Ohio St. J. Crim. L.*, 6: 231-276.

이 서 호: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행정학, 범죄사회학, 공공감사론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무질서 인식, 범죄 두려움 및 경찰신뢰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2023), “여성의 공공 CCTV 정책 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 범죄피해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2023). “자기통제가 청소년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 중립성 검증 : 사회적 애착요인들을 매개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knpu3@naver.com).